



미 증시, 1월 CPI 쇼크를 소화하며 반등

미국 증시 리뷰

14 일(수) 미국 증시는 12월 PPI 하향 조정, 시카고 연은 총재 및 옐런 재무 장관의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긍정적인 발언 등으로 인한 시장 금리 하락에 힘입어, 성장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는 등 1월 CPI 쇼크를 빠르게 소화하면서 반등에 성공(다우 +0.4%, S&P500 +1.0%, 나스닥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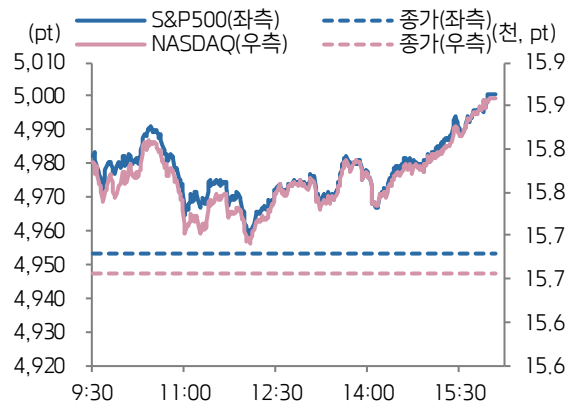
미 노동통계국은 12월 생산자물가(PPI)의 전월비(MoM) 수치가 기존 -0.1%에서 -0.2%로 하향조정 됐다고 설명. 이는 매년 초마다 시행하는 계절 조정의 수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힘.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1월 CPI가 예상보다 높았지만, 이번 달 수치 하나만 가지고서 너무 많은 것을 보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 상품 인플레이션은 디스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으며,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둔화되기는 했지만, 주택 관련 수치가 서프라이즈였다고 진단. 옐런 재무장관은 1월 CPI에 대해 작은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 추세를 보지 못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언급. 또 현재 미국 경제는 강한 상태이며 임금은 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에게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진단. 아울러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더 많기는 하지만, 지금 미국 경제에서 좋은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있다고 강조.

유로존의 4분기 경제성장률 예비치는 0.0%(QoQ)로 전분기(-0.1%)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컨센(0.0%)에 부합. 12월 산업생산은 2.6%(MoM)로 전월(0.4%) 및 컨센(-0.2%)을 큰 폭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 전년동월비(YoY)로도 1.2%를 기록하면서, 전월(-5.4%) 및 컨센(-4.1%)을 대폭 상회. 영국의 1월 헤드라인 소비자물가는 4.0%(YoY)로 전월(4.0%)과 동일했으며, 컨센(4.1%)을 소폭 하회. 근원 소비자물가도 5.1%(YoY)로 전월(5.1%)과 동일한 가운데, 컨센(5.2%)을 소폭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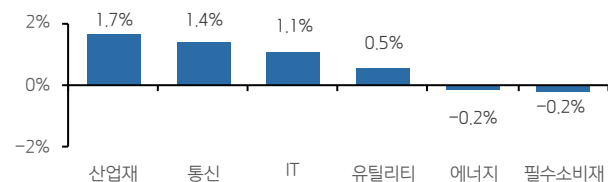
권도스 ECB 부총재는 인플레가 2% 목표로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너무 앞서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 향후 수개월 동안 유로존 기업들의 임금 협상 등과 관련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면서 근원 물가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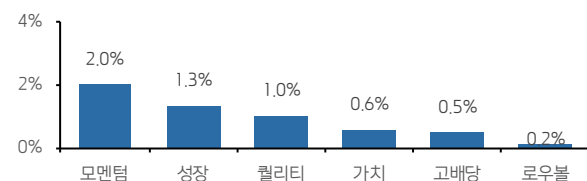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20.42	-1.1%	USD/KRW	1,335.26	+0.55%
코스피 200	352.69	-1.31%	달러 지수	104.73	-0.22%
코스닥	853.30	+0.96%	EUR/USD	1.07	+0%
코스닥 150	1,340.70	+0.3%	USD/CNH	7.22	+0.01%
S&P500	5,000.62	+0.96%	USD/JPY	150.55	-0.02%
NASDAQ	15,859.15	+1.3%	채권시장		
다우	38,424.27	+0.4%	국고채 3년	3.414	+6.7bp
VIX	14.38	-9.27%	국고채 10년	3.495	+5bp
러셀 2000	2,012.10	+2.44%	미국 국채 2년	4.578	-8bp
필라. 반도체	4,565.41	+2.18%	미국 국채 10년	4.255	-5.9bp
다우 운송	15,824.28	+0.24%	미국 국채 30년	4.435	-2.8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709.22	+0.43%	WTI	76.56	-1.68%
MSCI 전세계 지수	739.58	-1.11%	브렌트유	81.5	-1.53%
MSCI DM 지수	3,240.26	-1.24%	금	2004.9	-0.11%
MSCI EM 지수	996.78	+0.07%	은	22.39	+1.05%
MSCI 한국 ETF	63.87	+1.85%	구리	370	-0.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85%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43%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58%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29.1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엔비디아 및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 2. 원달러 환율 하락, 미 국채금리 하락 전환 등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 3. 저 PBR 업종들의 수급 변동성 확대 가능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우버, 에어비앤비, 차량공유회사 리프트의 실적 호조는 미국 여행 수요 및 소비 여력이 견조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서비스 물가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음을 시사. CPI 충격에도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1) 3 월 금리인하 전망 후퇴 기반영, 2) 인플레이션의 장기 하락 추세는 유효하다는 앨런 재무장관과 시카고 연은 총재 발언, 3) 미국 12 월 PPI 계절조정 하향에서 확인되는 상품 디스인플레이션.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12 개월 기준으로 2%가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없으며, 연준이 주목하는 수치는 CPI 가 아닌 근원 PCE 물가임을 강조. 앨런 재무장관 역시 한달의 변동폭 보다는 장기적인 추세를 봐야하며, 강한 경제성장과 임금 상승에도 인플레이션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등 시장에 우호적인 발언이었다고 해석.

Fed Watch 상 연내 금리인하 횟수는 CPI 발표 전 6 회에서 현재 4 회로 컨센서스가 변화. 3 월 동결 가능성은 90%로 컨센서스가 형성, 5 월과 6 월 동결 가능성 역시 50%대를 상회하는 가운데, 첫 금리인하 시점 컨센서스는 7 월까지 후퇴한 상황. 이에 따라 당분간 금리인하 시점을 둘러싼 증시 변동성은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 “상반기 인하 + 연내 3~4 회 인하”의 가정이 바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3 월 FOMC 가 중요.

14일(수) 국내증시는 미국 1월 CPI 쇼크, 미 국채 10년물 금리 급등 여파로 하락 출발했으나, 중국 증시 강세 및 외국인 순매수 전환에 힘입어 혼조세 마감 (KOSPI -1.1%, KOSDAQ 0.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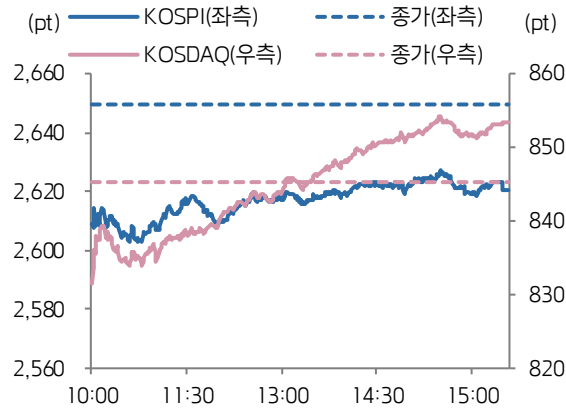
금일에는 원달러 환율 하락, 미국채 금리 하락 전환, 알파벳을 제치고 시총 3 위 기록한 엔비디아 강세 등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에 힘 입어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일 은행, 보험, 증권, 유통 업종 약세 보이며 저 PBR 주들에 대한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 이때 강세보인 테마는 AI 수혜(반도체 중소형주), 정책주(방산), 중국 소비 및 외자 판호 발급(화장품 브랜드사, 게임) 등 저 PBR 장세에서 소외되었던 업종들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 유입. 2 주 동안 국내 증시는 나스닥 및 기술주 강세와 별개로 저 PBR 랠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단기 차익실현 시 성장주의 가격 매력도 상승.

그럼에도 이번주 외국인 순매수 상위는 현대차, 현대차 우선주, 삼성물산, 기아, KB 금융으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을 반증. 최근 2 주간 코스피 5%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 과열부담은 존재하지만 해당 재료의 지속성은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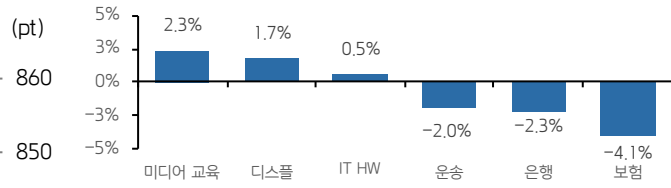
전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실행 방안 관련해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 기준일 지정 제도를 포함시킬 것이라는 보도. 작년에 정부는 3 월 정기주총에서 배당 규모를 확정된 뒤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상장기업들에 권고한바 있음. 3 월 주총시즌에 배당 절차 관련 내용들이 부각될 시 저 PBR 주들에 대한 개선 기대감 및 외국인 자금 추가 유입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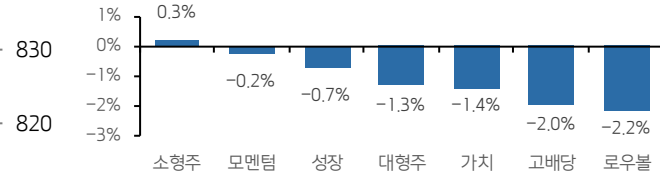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